

제3장 국정조사로 드러난 세월호 참사의 실체

1. 사고 원인

2. 부실한 조종 대응과 구조 실패

3. 왜곡된 언론 보도

4. 부실 수사

5. 재난 컨트롤타워의 붕괴

6. 밝혀지지 않은 의문점

5. 재난 컨트롤타워의 붕괴

(1) 부실한 재난대응 체계

- 정부의 재난 컨트롤타워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
-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안전행정부, 나라 안팎 모든 정보를 총괄한다는 국가정보원, 국정외 총책임을 맡은 컨트롤타워 청와대까지 세월호 침몰 소식을 최초로 알게 된 것이 “YTN 보도를 보고”라는 고백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재난대비 시스템이 세월호 침몰 전부터 이미 붕괴되어 있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냄.
- 119, 112, 122에 신고가 빗발칠 동안 영문도 모르던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안전행정부 상황실은 9시 19분 YTN 속보를 통해 사건을 인지했다고 밝힘.
- 최초 신고(단원고 최덕화 학생 8시51분 119에 신고)후 28분이나 지난 시점임.

<4월 16일 신고접수 및 보고, 중대본 설치 현황>

접수 및 상황 전파처	접수 및 상황전파 시각
전남 119 상황실	08시 52분
목포해경 상황실	08시 54분
제주VTS-세월호 교신	08시 55분
전남경찰청 112 상황실	08시 56분
목포해경 122 상황실	08시 58분
목포해경 상황보고 1보	09시 05분
해경구조본부 설치	09시 10분
전남 소방헬기 출동	09시 13분
전남소방본부장→전남도지사 보고	09시 15분
YTN 속보	09시 19분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보고	09시 25분
안전행정부 상황실→청와대·국무총리실 등 전파	09시 31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09시 45분

- 사고 내용이 안행부 장관님에게 보고된 것은 최초신고 33분후, 국가비상연락망으로 문자가 보내진 것은 최초신고 40분후임.
- 목포해경 1보 이후 중대본이 1차 브리핑을 하는 데까지 1시간 25분이 소요됨.
- 해경, 해수부, 소방, 경찰, 지자체중 그 어디도 재난발생을 안행부에 보고하지 않았음. 중대한 시스템 결함
- 현장에 출동한 해경 123정(09:43, 10:46) 등에서 “학생 2~3백 명이 못 나왔다”고 보고하였으나, 해수부 ‘상황보고서’에는 승객 잔류 사실 미기재(상황보고